

두산
인문극장
2025



6.17-7.5

지역
LOCAL

뮤지컬
광장시장

LOCAL

두산 인문극장 2025

지역 LOCAL

두산인문극장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사회학적, 인문학적, 예술적 상상력이 만나는 자리로 매년 주제를 정하여 그와 관련한 공연, 전시, 강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한다.

2025	지역 LOCAL
2024	권리 Rights
2023	Age, Age, Age 나이, 세대, 시대
2022	공정 Fairness
2020	푸드 FOOD
2019	아파트 Apartment Nation
2018	이타주의자 Altruist
2017	갈등 Conflict
2016	모험 New Imagination on the Extended Territory
2015	예외 例外 Exception, Mutation, or Abnormality on the Borders
2014	불신시대 The Age of Distrust
2013	빅 히스토리: 빅뱅에서 빅데이터까지 Big History From Big Bang to Big Data

당신의 지역은 어디인가요?

우리가 ‘지역’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지역은 보통 경계가 나누어진 물리적 공간으로만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단순한 지리적 구분만이 지역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지역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기억, 관계, 문화가 축적될 때도 형성된다. 우리가 지역을 경험하고 기억하는 방식에 따라 소속감을 느끼는 모든 장소와 공동체가 지역(LOCAL)이 될 수 있다. 2025년 두산인문극장은 ‘지역’을 다양한 방향에서 이야기하며 우리 사회가 마주한 지역의 모습을 함께 들여다본다.

‘지역’은 지리적인 면에서 다른 곳과는 구별되는 지표상의 공간적 범위를 말한다. 다양한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으로 구성되고 그곳만의 고유한 성격인 지역성을 갖는다. 고유한 성격은 인간과 자연 간 상호작용의 결과이며 다른 지역에 형성된 성격과 상호작용하기도 한다. 교통이 발달하기 전에는 거리가 가까운 지역 사이에서만 작용이 활발했지만 이제는 거리가 먼 곳들 사이의 교류도 늘어나고 있다.

지역의 문제는 ‘다름’ 때문이 아닌 ‘쏠림’ 때문에 일어난다. ‘지역’이라는 말은 원래 치우침이 없는 말이지만, ‘쏠림’ 때문에 중심에서 벗어났다는 뜻도 가지게 되었다. 중심에서 벗어난 것이 소외나 차별, 심지어 소멸이라는 현상과 연결되어 대표적인 불평등의 상징이 되기도 한다. 인류가 탄생해서 이동을 시작하면서 지역이 만들어진 300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변화해 온 지역을 인류학, 지리학, 생물학, 경제학, 사회학 등 다양한 관점으로 들여다본다. 우리가 지역의 중심을 잡고 전체가 조화로운 상태를 만들 수 있는지 고민한다.

강연

연강홀

1만 년의 고독: 인류의 이동과 지역의 탄생 윤신영 / 과학기자, 《에피》편집위원	4.7
조선 후기 국토의 발견과 살 곳의 모색 안대회 / 성균관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4.14
지역과 우리, 나의 영토성: 이주와 정체성 신혜란 /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4.21
저출산, 설명할 수 없는 명백한 현상 임동근 / 도시지리학자, 한국교원대학교 연구원	4.28
로컬푸드와 장소 정체성 박찬일 / 요리사, 음식 칼럼니스트	6.9
지역 청년이 겪는 수도권 바깥에서 먹고 살기 양승훈 / 경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6.16
서울 공화국이나 균형발전이나 이정우 /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	6.23
‘지방소멸’의 시간들 조문영 /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6.30

공연

Space111

연극 생추어리 시티 Sanctuary City 작. 마티나 마이옥(Martyna Majok) / 번역. 유은주 / 윤색. 유은주 이오진 연출. 이오진 / 출연. 이주영 김의태 아마르볼드	4.22-5.10
연극 엔들링스 Endlings 작. 셀린 송(Celine Song) / 번역. 조은정 임지윤(PIC) / 연출. 이래은 드라마터그. 김지혜 / 출연. 경지는 박옥출 백소정 양대은 이미라 이휘 홍윤희	5.20-6.7
뮤지컬 광장시장 작. 윤미현 / 작곡·음악감독. 나실인 / 연출. 이소영 출연. 강정임 박현철 송석근 윤현길 이지현 정대진	6.17-7.5

전시

두산갤러리

Ringing Saga 참여작가. 구동희 Donghee Koo 김보경 Bokyoung Kim 안진선 Jinseon Ahn 이유성 Eusung Lee 홍이현숙 HongLee, Hyunsook	6.4-7.12
--	-----------------

뮤지컬 광장시장



접근성 사항

한글자막

음성소개

휠체어석

안내보행

문자소통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시놉시스

아응은 음악 공부를 위해 미얀마에서 한국으로 유학 왔다. 하지만 미얀마 민주화 항쟁으로 아버지가 희생되었고 꿈을 잠시 접어 둘 수밖에 없게 된다. 이제는 꿈보다는 밥! 아응은 광장시장에서 힘차게 밥 배달을 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멈춰 있다고 생각한 아응의 꿈이 이곳 광장시장에서 펼쳐지기 시작한다.

음성 소개



주요 인물 소개

아응

“밥 식는다! 밥!
오바로크는 그만 돌리고! 밥 먹어. 먹고 해!”

미얀마에서 한국으로 유학 왔다. 그 사이 여러 사정이 생겨,
광장시장에서 밥 배달을 한다.
쟁반을 머리에 이고, 밥 배달하는 모습은 거의 서커스급! 스물다섯.

오국자

“내래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기래.
한 끼니 먹고 살라구 저래 일하는 것을.”

아흔. 아응이 일하는 <인천밥집> 사장님. 그 나이에 꿈을 잃지 않고,
여전히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 중이다. 무뚝뚝한 성미.
하지만 마음은 뜨겁고, 정이 많다.
그 모습을 들킬까 싶어, 습관적으로 무를 써는 모습을 많이 보인다.

전주댁

“아응아! 마음에 담아두지 말어.
시장서 일하면 별사람이 다 있은께.”

<전주댁> 팻말을 걸고, 노점에서 칼국수를 판다.
아내가 했던 <전주집>을 이어받아서 하고 있다.
오지랖이라면 오지랖 많은 성격 같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게 다 ‘정’ 같다.

상식

“덕자가 그랬어. 이곳엔 밥과 꿈이 전부 다 있다고.
그런 덕자가 여길 떠났을 리가 없어.”

스물아홉. <상식이네> 백반집을 운영.

재봉틀

“암만! 오늘은 장단이 척척 맞구먼.”

구로공단 시대로 시작해 미싱사까지.
환갑. 묵묵히 재봉틀만 돌리는 인물. 하지만 결정적일 때가 많다.

선생님

“우리가 언제까지 광장시장에서 빈대떡만 먹을 순 없잖아요.
젓갈 집 사장님이라고 해서, 꿈 없겠어요?”

포목점 <고운 목소리> 선생님

넘버 리스트

- M1. Mi chiamano Mimi (선생님)
 - M2. 꿈을 두고 왔어 (아응)
 - M3. 떠나라 했어 (아응 & 코러스)
 - M4. 뽀뽀마른 저녁 (아응)
 - M5. 밥상에 수저를 놓듯 (애석)
 - M6. 아랫목 솜이불 속에 묻어둔 (아응 & 코러스)
 - M7. Caro mio ben 1 (국자)
 - M8. 땅에 심었대 (아응 & 선생님)
 - M9. 촌스러운 사랑 하자면서 (애석 & 코러스)
 - M10. Caro mio ben 2 (국자)
 - M11. 봄 (선생님)
 - M12. 이별은 꿈같다 (아응)
 - M13. O mio babuino caro (선생님)
 - M14. Caro nome che il mio cor (아응)
 - M15. 떠나라 했어 Reprise (아응 & 코러스)
- 부록: 광장시장 (다같이)





사
부
898
2265-9837
2273-4988
2273-4988
CCTV 24시간 녹화중
MG 새마을금고
WHY? 새마을금고 공제상품일까요?
질병, 재해 치료비에 생활보장까지
다양한 보장이 한가득~!!
압력적인 보험료로 넉넉한 보장!!
가족의 행복과 믿음을 지켜드리는
MG새마을금고보험
NO.190
OMEGA Textile
Korean
Washable Silk
Korea
Wash
new
Omeg
Korean Cotton
Washable Silk
Mosa 1Ho
나인직물
3번출입구
도이
아라

작 **윤미현**

연극

<우리 멧돼지가 나오는 집으로 갈까요?> <갈수록 가관이네!> <양갈래 머리와 아이엠에프>
<텍사스 고모> <할미꽃 단란주점 할머니가 멜론씨를 준다고 했어요>
<광주리를 이고 나가시네요, 또> 외

뮤지컬

<양봉트럭> <바바리맨-킬 라이크 아이 두>

오페라

<춘향탈옥> <빨간바지> <땃발킬러> <블랙리코더>

수상

2019 벽산희곡상 <목선>
2019 동아연극상 희곡상 <텍사스 고모>
2019 두산연강예술상 공연 예술부문
2016 서울연극제 희곡상 <장판>

작가 노트

가장 촌스러운 게 평화가 아닐까?

어렸을 적엔 여름 샌들에 양말을 신고, 양산을 쓰고 가는 할머니들의 뒷모습이 그저 촌스럽다고만 생각했다. 도무지 멋이 나지 않는 그 패션을 대체 왜? 고수하는지 의아했다. 어머! 세상에 너무 촌스럽잖아, 하며 속으로 웃던 적도 많았다. 그런데 어느덧 (조금 살아보니) 생활 속에서 묻어 나오는, 그 촌스러움이 삶의 평화가 아닐까?로 바뀌었다.

뮤지컬 <광장시장>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촌스러운 게 가장 큰 평화지! 라는 생각

주인공 아응은 미얀마에서 한국으로 음악 유학을 왔다. 그러던 중에, 미얀마 민주화 항쟁으로 아버지가 희생되었다. 그때부터 불법 체류자로 남게 된 아응은, 일상의 평화를 꿈꾸기 시작한다. 불법 체류자로서 항상 불안해하며, 누군가가 본인의 뒤를 쫓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함에서 벗어나고 싶어진다. 아응의 마음에 다시 평화를 심어 준 사람은, 덕자 할머니다. 하루 발일을 마치고 나면, 본인에게 고봉밥을 퍼주는 덕자 할머니. 아응은 덕자 할머니가 ‘평화’라고 느낀다. 그러던 어느 날 덕자 할머니가 아응에게 말한다.

“꿈을 찾아 떠나거라.”

우여곡절을 겪은 후에, 아응이 찾아온 곳은 광장시장이다. 아응은 덕자 할머니와의 추억, 즉 평화로웠던 시간들을 마음속에 쌓아둔 채 밥 배달을 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늘 덕자 할머니를 떠올린다. 덕자 할머니는 아응에게 언제나 평화였으니까! 그 마음 속 평화가 있어서, 광장시장에서 힘든 밥 배달을 하면서도, 힘들지가 않다. 또, 본인의 꿈을 다시 꿈꾸기 시작한다.

뮤지컬 <광장시장> 주인공 아응의 대사 중

흙 속에 박힌 캐내지 못한 감자처럼
늘어갈까 봐 내 꿈이
배냇저고리처럼 어린 꿈이라고 했어
호미로 캐지 못하는 꿈

그 촌스러운 꿈같은 평화는, 우리가 함께 만드는 것!

아응은 덕자 할머니와 함께 했던 시간을 떠나와 광장시장에서 밥 배달을 하면서, 미얀마의 평화도 생각할 수 있게 된다. 아응이 다시, 미얀마의 평화를 생각할

수 있게 된 건, 아응을 생각해 주는 광장시장 사람들 덕분이다. 대놓고 아응을 챙겨주는 전주댁 할아버지와 무뚝뚝하지만 속마음은 한없이 따뜻한 국자, 그리고 눈치가 없을 것 같으면서도 눈치가 빠른 상식.

평화는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일

등장인물 아응이 꿈꾸던 평화는, 그 평화가 어떤 종류의 평화든지 간에 결국은, 혼자서는 이룰 수 없던 평화였다. 그 평화는 광장시장 사람들로 인해 채워지게 되니까. 아응에겐 광장시장 사람들이 ‘평화’다. 결국 ‘평화’는 개인이 아닌 함께하는 이들이 있어야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을...

가끔 우리 모두에게 촌스러워지는, 그런 일상의 저녁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꿈꾸는 평화는 아주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현재 가장 촌스러운 일상의 어떤 순간이 아닐까? 그래서 가끔은 아주 많이 촌스러워지는, 어떤 저녁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응이 덕자 할머니하고 함께 했던 그 저녁처럼.

뮤지컬 <광장시장> 주인공 아응의 대사 중

덕자 할머니하고 둘이 덜덜덜 돌아가는 늙은 선풍기 켜며 밥알 같은 작은 별 세며,
흙탕물 같은 새까만 밤하늘에 박아놓은, 누런 옥수수 같은 달 보는 게 좋았는데.
덕자 할머니하고 둘이 덜덜덜 돌아가는 영감처럼 늙은, 선풍기 틀어놓고,
소나기가 내리는 별 없는 밤엔.

빗소리에 툭툭 불은, 작은 별 같은 밥알 세는 게 좋았는데.
그 빗물에 젖은 밥! 볼 속에 넣고 우물우물거리는 게 좋았는데.
밥알 같은 작은 별 툭툭 불은 하늘에 띄워놓는 게 좋았는데.
흙탕물 같은 그 밤이 그렇게 참! 좋았는데.

덕자 할머니와 함께 있던 그 밤이 그렇게 평화였는데!
덕자 할머니만이 내겐 평화였는데!

미안마 양곤에서 식구와 함께했던 그 평화가, 덕자 할머니에게 있었어.

Kwang Jang
Market

광 장

시 장

의류도상가



작곡·음악감독 나실인

뮤지컬

<울어도 첫사랑> <명색이 아프레길> <극장 앞 독립군>

오페라

<빨간바지> <블랙리코더> <춘향탈옥> <나비의 꿈>

발레

<안중근, 천국에서의 춤> <오월바람> <처용>

수상

2018 대한민국오페라대상 최우수상(소극장 부문) <나비의 꿈>

음악 노트

뮤지컬 <광장시장>을 상상하는 일,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음악을 들려줄 수 있을지 떠올리는 일은 꽤나 즐거운 작업이었다.

내가 그려본 ‘광장시장’은 할아버지 세대와 손자 세대가 공존하고, 한국인들과 외국인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야말로 ‘공생’의 공간이었다. 그래서 이곳에서 들리는 음악도 여러 장르가 뒤섞여 오묘하게 조화를 이루며, 독특한 매력을 뽐내길 바랐다.

나는 뮤지컬 <광장시장>을 위해 다양한 음악들을 상상했다. 세련된 시티팝 감성 위에 트로트의 친숙함을, 오페라의 아름다운 선율과 재즈의 스윙을, 발라드의 감성과 댄스의 에너지를, 여러 뮤지컬 인용들과 심지어 판소리까지. 그렇게 여러 장르의 요소들이 흘러넘치도록 담긴 음악을 만들고 싶었고, 결국 해내고 말았다!

뮤지컬 <광장시장>의 음악은 결코 무겁거나 진지하지 않다. 오히려 ‘가벼운 봄날의 기쁨(앙리 마티스)’처럼, 유쾌하고 신선하고 밝다. 나는 괜히 분위기만 잡고 어려운 척하는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다. 조금은 단순해 보일 수 있어도, 진솔하고 담백한 음악, 기본기가 충실해서 튼튼하고 내실 있는 음악을 늘 추구해왔다. 이번 작업을 통해, 내 음악 안에 담긴 ‘즐거움’과 ‘에너지’가 더 깊고 다채롭게 진화한 것 같아 참 기쁘다.

그리고 뮤지컬 <광장시장>의 음악은 무엇보다도 따뜻하다. 주인공 아음을 감싸안은 시장 사람들처럼. 서로 돕고, 이해하고, 배려하며, 실수로라도 상처 주지 않으려 애쓰는, 그런 착한 사람들이 모인 곳. 그러면서도 자신의 성격을 숨기지 않고 진솔하게 드러내며 부딪히며 살아가는 사람들. 나는 그 따뜻한 마음을 음악에 담고자 했다.

음악 하나로 마음이 오간다는 건, 언제나 기적 같은 일이다. 나는 뮤지컬 <광장시장>을 통해 그 기적을 다시 한번 꿈꿀 수 있었고, 그 사실만으로도 참 행복하다. 이 음악이 관객들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고,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하루를 조금 더 유쾌하게 만들어주길 바란다. 그리고 혹시 마음속에 남는 한 소절이 있다면, 꼭 오랫동안 소중히 간직해 주시길 바란다.

1498 *rit.*

의 꿈을 찾아 사랑 하 는 사람과 함께 하 는 이 곳

Pf. *Db Eb C-7 Eb°7 F- F-/Eb Bb°9/D*

1501 ♩ = 92

이 착한 사람들과 함께 영원

Pf. *mp Db Ab/C Bb-7 Eb7(13)*

1505 ♩ = 108

히 함께

Pf. *f E F#(add9) Ab 3 3 p < f ff 3 3 p ff*

광장시장



연출 이소영

안무

무용 <물고기, 불가사리, 문어, 뱀 코끼리, 늑대가 흐르는 몸의 노래>
<(그냥)있기; 잊기 or 잇기> <강을 건너듯 문지방을 넘어> 외

연극 <더 웨일> <세일즈 맨의 죽음> <댄스 네이션>
<엔젤스 인 아메리카-파트 투: 페레스트로이카>
<엔젤스 인 아메리카-파트 원: 밀레니엄이 다가온다> <그을린 사랑> 외

연출

뮤지컬 <모비딕>

연출 노트

한 개인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품고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평화가 있어야 한다. 이 작업은 꿈의 밑바탕을 이루는 평화에 대해, 우리의 작품을 통해 그 평화에 대한 믿음을 전하고자 하는 데에서 출발했다.

뮤지컬 <광장시장> 속 사람들의 오지랖은, 쿨하고 힙한 감각이 대세인 지금의 시대에 어쩌면 촌스럽고 불편하게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살아남기 위해 길러진 마음의 기술이다. 시장 사람들의 주름진 손끝만큼이나 노련한 눈빛은, 대충 보고도 삶의 근심과 불안을 알아챈다. 투박하게 필요한 만큼만 툭툭 내어주는 결, 혹 들어와 마음을 어루만지는 방식이 이들이 누군가를 살리는 방식이다. 그렇게 밥 한 끼를 내어주고 누군가의 허기를 채워준다.

아응은 미안마에서 건너온 이주민 여성이다. 꿈을 찾아 유학생으로 이곳으로 향했지만, 고국의 상황과 가족이 겪은 불행은 그녀를 합법적인 유학생의 위치에서 불법체류자로 이곳저곳의 발을 전전하는 위치로 전락시킨다. 그녀는 한국의 여러 밭과 밥집을 전전하며 사투리를 빠르게 익히고, 한국인의 삶의 지혜인 눈치를 배우며, 강하게 살아남아 왔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엔 여전히 떠나온 고향 땅의 현실이 툭툭 스며든다. 그래서 그녀는 소중한 것을 만날수록 그것이 사라질까 봐 두렵고, 머물기를 바라면서도 허락되지 않은 시간들이 그녀의 마음을 출게 만든다. 따뜻한 밥 한 끼의 온기는 그래서 그녀에게 중요하다. 하지만 아응은 그럼에도 삶을 멈추지 않는다. 광장시장의 땅 위에서 그녀는 단지 버티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를 살아가게 하는 힘을 조금씩 키워내고 있다. 시장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녀는 자신의 생명력을 그들 사이에 심고, 무던한 일상 속에서 조심스레 뿌리내린다. 그리고 꿈을 꾀다. 자신이 선택한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이 작업은 특정 사건이나 커다란 구원의 서사가 아니라, 무던히 이어지는 일상 속에서 피어나는 평화, 일상을 밑 받치는 평화의 판타지를 중심에 둔다. 나는 이 정서의 결을 놓치지 않기 위해 작가와 작곡가의 원형을 존중하며 협업했고,

장면과 곡의 구성의 의도를 따르되 평화라는 판타지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들 사이의 흐름에 따라 리듬을 구성하며 감정과 음악, 움직임이 맞물리는 지점을 살펴 연출하려고 했다.

프리프로덕션 기간 동안 여신동 미술감독과 박세련 조연출, 배우리 안무가가 포함된 연출부는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지우는 형식을 실험했다. 구체적인 소품이나 세트는 배제하고, 배우들의 몸짓, 손짓, 눈빛, 발걸음의 방향으로 비가시적인 상황, 곧 인물의 ‘마음’을 드러내기로 했다. 배우들은 관객 사이를 오가며 연기하고, 관객은 실제 시장을 거니는 듯한 시시각각 달라지는 숨결을 경험하게 된다. 극장은 그렇게 건너편의 시장과 닮아간다.

나는 이 작업에 숨결 이상의 결을 부여하고 싶었다. 살아내기 위해 쓰는 힘, 그리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쓰는 힘. 그건 마냥 다정하고 부드럽지 않다. 투박하고, 둔탁하고, 거세고, 때로는 보기 좋지 않지만 그 안에 생의 힘이 담겨 있다. 나는 그 생의 힘이 만들어내는 내 몸의 평화, 그것이 가진 힘을 전하고 싶었다. 시골 밭과 시장의 밥집 사람들에게서 전해진 힘은, 특히 아음을 통해서 작고 위태롭지만 강인한 생의 방향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출하고자 했다.

이 작업의 과정을 통해 ‘지역 LOCAL’과 ‘공동체 Community’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지역성’은 이 극장이 위치한 물리적 지점의 경계를 넘어, 함께 사는 삶의 방식, 연결되고자 하는 마음의 방식으로 다가왔다. 두산인문극장 2025의 주제처럼, 지역에 뿌리내린 삶의 형태는 결국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 기억해야 할 일상의 감각이다. 일상이 가능하게 하는 평화, 그 평화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환대, 그 환대를 제공하는 공간은 애초부터 있다기보다는 삶의 허기를 채워주는 힘, 밥 한 끼를 나누는 연결의 과정 속에 서서히 발견되고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환대의 공간으로서의 ‘광장시장’은 결국 그렇게 한 끼의 평화로부터 만들어지고 발견될 것이다.

밥과 평화가 있는 ‘광장시장’

흙냄새를 품은 싱싱한 채소, 계절의
기운을 담은 과일, 바닷바람을 머금은
가판대 위의 생선
고소한 기름 냄새를 풍기는 빈대떡,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발소리
덜컹덜컹 바닥을 구르는 손수레와
자전거 바퀴
부릉부릉 소리를 내며 비좁은 통로를
오가는 오토바이

‘골라, 골라’, ‘이건 덤이요’,
‘한 번 맛보세요’
‘조금 깎아 줘’, ‘이거 하나 더 해서
오천 원에 줘’

사람들이 콩나물 대가리처럼 뻗뻗하게
들어찬 시장 안의 모습과 그들이 만들어 낸
정겨운 소음은 살아있는 풍경화이다.

도시 곳곳, 농촌 어느 곳이든 자리한 시장은
상품을 거래하는 경제적 장소이다.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상품 거래가 이루어지는
구체적 공간으로 상업적 교환의 의미를
가장 크게 지닌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여러 지역에서 생산되어 유통되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간격을 좁히고 서로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시장은 상품의 거래뿐 아니라, 인적 교류와
정보의 교환이 일어나는 사회적 장소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꼭 필요한 물건이 없더라도

구경 삼아 시장에 나온다. 세상 돌아가는
소식과 유행이 한눈에 보이고, 사람들의
귀와 입을 통해 그 정보가 퍼져 나가는
곳이 바로 시장이다. 시장의 왁자지껄함,
사람들이 만들어 내는 활력은 사회적
장소로서 시장이 가진 에너지를 증명한다.
이런 시장의 모습은 사람이 만들어 내고
중심이 되는 공동체의 풍경 그 자체이다.

서울의 중심, 종로에 자리한 ‘광장시장’은
단지 경제적 장소만의 ‘시장’이 아니다.
일상의 중심으로 과거와 현재를 잇고
공동체의 모습을 간직한 공간이다.

1900년대 초, 러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일본은 조선 침략을 본격화하고자
화폐정리사업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조선의 많은 상인은 금전적 어려움과 큰
손해를 입게 되었는데, 이는 곧 상업의
위기로 다가왔다. 이때 자본력을 가진
거상들을 중심으로 ‘조선인에 의한, 조선의
시장’을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이 생겼다.
이에 조선의 상인들 스스로 힘을 합쳐 문을
연 곳이 바로 광장시장이다. 그 시작에
공동체의 협력이 있었다.

1905년에 문을 연 우리나라 최초의 사설
상설시장인 광장시장은 일용품을 거래하는
일상적 시장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해방과 6·25전쟁, 분단 등 역사적 굴곡을
거치면서 서울로 몰린 귀국 동포와 이주민,
북한에서 내려온 월남민과 피란민들의 생계
터전으로 공간의 성격과 시장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변화하였다.

전라도횃집, 목포식당, 강원칼국수,
충청도식당, 황해도빈대떡, 나주댁육회,
홍천집, 경상도횃집, 호남집, 광주집,
완도집.....

전국 각지의 지명이 총망라된 광장시장 내
점포의 상호는 이곳으로 몰려든 사람들의
고향을 짐작하게 한다. 과거 광장시장은
‘광주리 하나만 놓아도 먹고산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성업하던 곳으로, 아무런 밀천
없이 서울로 온 사람들의 희망과 기대로
형성되어 온 공간이다. 상인들은 특별한
기술과 자본 없이 누구나 펼칠 수 있었던
난전에서 생계를 꾸려나갔다. 번듯한 간판도
없이 길 위에서 서로를 부르던 호칭이
가게 이름이 되었고, 그들이 살아낸 그
하루하루가 쌓여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냈다.

1960년대 광장시장의 주요 거래 품목은
일용품에서 포목과 원단으로 변화하였다.
당시 포목과 직물의 거래량이 전국의 약
50%를 점유하고 있을 정도로 컸다. 전국
최대 규모의 원단 전문시장으로 명성을 누린
것이 바로 이때이다.

시장의 호황으로 많은 사람이 몰리면서
음식을 파는 곳이 자연스레 많아졌다.
그러나 불에 취약한 원단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던 광장시장은 여러 차례 겪은 큰
화재로 인해 ‘불을 사용하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겨울에는 물난로만 허용하였고,
정해진 장소에서만 음식업을 하도록 하였다.

그 지정된 장소가 바로 오늘날 광장시장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먹자골목이다.
광장시장 주변에는 크고 작은 시장이 10여
개 있다. 어느 시장이나 음식을 파는 곳은
존재하지만, 광장시장에는 100여 개가 넘는
많은 수의 음식 노점과 음식점이 모여 있어
서울을 대표하는 음식 명소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광장시장
먹자골목에서 판매되는 음식은 단순한
메뉴들이다. 비빔밥, 칼국수, 빈대떡, 김밥,
떡볶이, 순대... 우리 주위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평범한 것뿐이다.

하지만 이 음식들은 불을 마음껏 사용하지
못하는 제한된 상황에서 만들어졌다.
누구는 새벽 내 만든 김밥을 다라이에
담아 시장에 나왔다. 누구는 집에서 만든
순대를 수레에 싣고 나와 작은 화구에 놓고
따뜻하게 데웠다. 누구는 다 만들어 놓은
재료를 양푼에 담아 한 그릇 비빔밥으로
팔았다. 그리고 이 음식은 배고픔을 참고
새벽 도매시장을 누빈 누군가의 허기짐을
달랬고, 장사로 끼니를 놓친 누군가의
늦은 식사가 되었다. 또, 주머니가 가벼운
누군가의 배를 든든히 채워주는 양식이
되기도 하였다. 광장시장의 음식은 특별한
것이 없다. 그러나 시장의 사람들 모두에게
생계와 생명의 밥이었고, 꿈을 품게 하는
든든함이었다. 그 귀함이 광장시장만의
음식을 탄생시켰다.

뮤지컬 <광장시장> 속 광장시장도 바로 이런 공간이다. 생계를 이끄는 삶의 터전이자, 사람들의 꿈이 품어져 있는 곳.

조선의 상업을 지키고 자신들의 터전을 ‘스스로’ 그리고 ‘함께’ 보호하고자 했던 그 시작처럼, 광장시장의 서사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교차하는 가운데 서로를 돕고 의지하며 전개되었다. 개인의 일상이 모여 하나의 삶이 만들어졌고, 닮은 듯 다른 서로의 인생을 응원하며 그 터전을 다져왔다. 그래서 광장시장은 다양한 존재들과 삶이 뒤섞인 복잡하고 어지러운 공간으로 다가오지만, 그 너머에는 서로를 향한 온기와 애정이 가득한 공간이 있다.

뮤지컬 <광장시장>의 사람들은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광장시장에서 살아간다.

주인공 ‘아응’은 미얀마 양곤에서 음악 공부를 위해 한국에 왔지만, 유학 생활 중 미얀마 민주주의 항쟁으로 아버지가 희생되면서 공부를 중단한다. 이후 진도의 대파발, 목포의 식당을 거쳐 광장시장 노점 밥집 ‘인천집’에서 밥을 배달하며 외국인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다. 아응이 일하는 밥집의 사장 ‘오국자’는 고향을 떠나온 피란민이고, ‘인천집’의 옆에 자리한 칼국수 노점 ‘전주댁’의 할아버지는 광주민주화운동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인물이다. ‘외국인 노동자’, ‘피란민’, ‘역사의 상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 등 한국 사회 현재와 과거의 굴곡진 단면의 한

조각씩을 가진 사람들이 공존하는 곳이 바로 광장시장이다.

그리고 이들이 가진 사연과 그 무거움이 타인을 향한 배려와 온기로 전환되어 표현된 것이 바로 ‘밥’이다. 전쟁과 피란 생활 때 겪은 배고픔이 객지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아응의 슬픔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오국자의 마음과, 자신처럼 민주화운동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아응을 감싸고 보살피는 전주댁 할아버지의 마음이 응축된 것이 ‘밥’이다. 그래서 아응에게 ‘밥’은 특별하다. 한국에서 가장 많이 들은 소리가 ‘밥 먹었어?’이다. 그 말이 지겨우면서도 마음 따뜻해지는 소리란 것을 아응도 안다.

아응에게 ‘밥’의 의미를 처음 알려준 사람은 진도 대파밭에서 만난 ‘덕자’이다. 광주로 유학 보낸 아들이 민주화운동으로 희생되면서 그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인물이다. 그래서 아응이 겪는 슬픔이 곧 자신의 슬픔 같았고, 꿈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아응의 모습은 꿈을 채 펼치지 못한 아들을 바라보는 것 같았다. 그래서 덕자가 아응에게 내준 고봉밥은 슬픔에 대한 위로이자, 꿈을 향해 걸어가길 바라는 엄마의 응원이었다.

아응에게 덕자는 현재를 살아가는 힘이자 꿈을 꾸게 하는 존재이다. 하지만 볼러도 오지 않는 덕자는, 마음에서만 보이는 덕자는 아응에게 여전히 희미한 것이기도 하다. 광장시장으로 온 아응에게 진도 대파밭 덕자는 희미하게만 보인다.

* ‘전주댁’의 광주민주화운동 서사는 작가가 설정한 인물 배경으로, 공연에는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응이 광장시장에서 마주하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 덕자 같은 사람들이다.
아응의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 아응의 꿈을
응원하는 사람, 그리고 아응을 사랑하는
사람 모두 덕자이다. 새로운 덕자들이
가득한 공간이 바로 광장시장이다. 그래서
아응에게 광장시장은 ‘밥과 꿈이 다 있는’
곳이다.

‘오늘 덕자가 오는 날이야. 장 보러
왔어.’라고 말하는 아응에게, 통통 불은
칼국수를 만들어 준 전주댁 할아버지,
비빔밥을 푸짐하게 담고 비단 상보를 덮어
건넌 오국자, 아응의 노래로 소리를 입힌
안동포로 수의를 지어준 재봉틀아줌마,
그리고 덕자의 꿈을 지켜주겠다고 말하는
상식 등 광장시장의 사람들은 모두
덕자이다. 진도 대파밭 덕자뿐 아니라,
우리나라 덕자들은 모두 ‘밥’을 말한다. 그
밥에 사랑, 관심, 안부, 응원, 위로가 담겨
있다. 그 감정의 밀도와 깊이를 우리는 그냥
압축하여 ‘밥’이라 한다.

뮤지컬 <광장시장>을 통해 우리가
지나치던 평범한 풍경 속에서, 어쩌면
덕자일지 모르는 존재들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그리고 이미 덕자인 사람들을
떠올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잠시잠



강정임

오국자 역 외

(양구할머니, 차옥,
할머니1, 여자들)

연극

<존경하는 엘레나 선생님> <어딘가에, 어떤 사람> <오렌지 북극곰>
<행복한 날들> <한밤중에 개에게 일어난 의문의 사건>
<소설가 구보씨의 1일> <페르귄트> 외

뮤지컬

<빨래> <러브레터> <친정엄마> <스파이> 외

영화

<여고생> <불도저에 탄 소녀> <러닝타임은 77분> 외

드라마

<트리거> <닭강정> <경이로운 소문2: 카운터 펀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파친코> 외



박현철

전주덕역 외

(할머니3, 여자들)

연극

<한 여름밤의 템페스트> <토지> <월화> <검은 바다> <첼카시> <스캔들>
<겨울 선인장> <더 러버 & 리뷰 스케치> <노래하는 사일록> <넥타이들>
<사보이 사우나> <코리아 셰이크> <쑹노인 풍당면> 외

뮤지컬

<인사이드 미> <동동> <날아라, 박씨!>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
<달동네 콤플렉스> <유섬이> 외

영화

<거미집>

드라마

<오징어 게임 2>

연출

<소쇄원에서 꿈을 꾸다> <백진강-흰여울 이야기> <좀비가 된 사람들>
<페페의 꿈> <아이,스웨어> <나도, 밤나무!> 외



송석근

상식 역 외

(애석, 등산복 아저씨)

연극

<선애에게> <GV 빌런 고태경> <슈퍼파워> <제로 칠드 제로>
<문순> <트랙터> <만선> <스웨트> <햄릿> <X의 비극>

드라마

<크래시>

뮤지컬

<달을 품은 슈퍼맨> <서울의 달> <장 담그는 날>



윤현길

재봉틀 역 외

(옥천미용실 원장, 애석의 여자,
덕자, 등산복 아줌마, 중년 아줌마,
할머니2, 여자들)

연극

<목련풍선> <화성골 소녀> <어느 물리학자의 낮잠> <연안지대>
<출입국사무소의 오이디푸스> <이런 밤, 틀 가운데서>
<댄스 네이션> <잔인하게, 부드럽게> <금조 이야기> <추락 II> 외

드라마

<가생수: 더 그레이> <운수 오진 날> <천원짜리 변호사>
<그린마더스클럽> <유미의 세포들 시즌1,2> <모범형사 시즌2>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 <지옥> 외

영화

<야당> <데드맨> <정이> <내가 죽던 날> 외



이지현

선생님 역 외

(김약사, 조피디, 취준생,
전주댁 할머니, 여자들)

오페라

<마술피리> <피가로의 결혼> <코치 판 투테> <마탄의 사수>

<루치아 디 라메르무어> <로미오와 줄리엣>

<호프만의 이야기> <어린이와 마법> 외

음악극

<비욘드 라이프> <호모루덴스>

무용

<여우뿔>

음반

<이지현 찬송가> <노래서점>



정대진
아은 역

연극

<페이스 타임> <열차> <늦는 사람> <커튼> <일상에서 살아남기>
<아는 사람 되기> <99% 천재일기> <(먼)미래무용>
<기후비상사태: 리허설> <밤의 사막 너머>

수상

제11회 미래연극제 연기상 (SPACE : 연극)







연습노트

뮤지컬 <광장시장>은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물고,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소품을 최대한 거둬냈다. 오직 배우의 몸과 소리로 형태를 그려내 보고자 했다. 이러한 시도는 본 작품이 가진 ‘평화’, ‘마음’, ‘꿈’, ‘사랑’이라는 추상명사를 무대언어로 치환하는 시도이며, 관객에게도 자신만의 형태를 그려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는 연출부의 의도를 담고 있다. 프로덕션 내 모든 창작자들은 서로의 파트에서 무형함을 유형함으로 치환할 수 있는 방법을 깊이 논의하고 연구했다. 이러한 연출적 컨셉을 담아 설계한 워크숍을 배우들과 진행했다.

연출 이소영 진행 - 광장시장 관찰 워크숍

- # 광장시장 방문 - 행동을 중심으로
관찰하기, 움직이는 사람들을 관찰하기,
사진기록
- 움직임의 가능성으로 볼 때, 광장시장을 방문했을 때 무엇을 관찰할 것인가 중심으로.
- = 창작진은 광장시장을 방문해 시장
사람들과 손님들의 모습, 몸의 태도,
시장의 온도와 습도, 조도 등 시장의 여러
무·유형한 움직임들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길 메인길 외에 사람이 안 다니는 골목에도 상점들이 다 있더라. 이게 한공간이 맞나? 공기도 다르더라. 조금만 나가면 메인 거리의 분위기와 아주 다르게 느껴지더라.

지현 불경기로 골목 안쪽은 사람이 없는 것 같더라.



석근 지나다니는 사람의 몸과 피해 다니는 사람의 몸을 보았고, 노점을 하는 분들의 모습과 가게 안에서 일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았다. 그 몸이 모두 달랐다. 쉴 새 없이 바쁘기도 하고 한가하게 조는 모습도 있더라.

정임 상인들의 몸이 부산스럽지 않더라. 릴렉스 되어 있고 동선이 다 있더라. 어르신들도 한자리에서 팔만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대진 장소라는 게 분위기가 있고 취하는 태도가 다 다르다. 시장이라는 장소가 소음이나 사적인 대화가 아무렇지 않게 다가오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타자에 대한 경계심이 낮아질 수 있는 장소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현철 시장이 조금 시끄럽다는 느낌이 있는데 오늘은 기분이 좋다는 느낌을 받았다. 시장 안쪽 지붕에 들어오는 햇살이 밝아서 그런 느낌을 받은 것 같다.

안무 배유리 진행 - 시장 속 움직임 워크숍

움직임 워크숍

- 상인의 움직임, 기다리는 사람, 맞이하는 사람, 화장실 가는 상인 등등
- 리듬의 변화 주기(퍼스널 속도 찾아보기)

소영 멀리서 보면 시장이 보이고 가까이서 보니 장사가 보인다. 각각의 세계가 펼쳐진다는 것이 흥미로웠다. 개별의 상황이 어제 보았던 시장의 기억과 경험으로 붙어나는 게 보였다. 행동이 많지 않아도 감각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조연출 박세련 진행 - 사물에 생명 불어넣기와 분절 인형 워크숍

분절 인형 워크숍

- 인형을 살려내는 과정 (시선, 중력, 호흡)

오브제에 생명 불어넣기

- 오브제 (사물) 살려보기



세련 무엇이 살아있다고 혹은 죽어있다고 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 어쩌면 마음과 믿어주는 것이 시작일 지도 모르겠다. 극 안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누군가를 부를 수 있고, 떠나보낼 수 있는지, 그 시작은 어디로부터 출발하는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다.



노인생애체험센터 - 노인 움직임 체험





안무 배우리 진행 - 노인 움직임 워크숍

노인 되기 (서기, 앉기, 걷기, 뛰기)

- 노동의 몸 입혀보기



소영 우리가 추구하는 드라마가

<광장시장>만의 것이 되기 위해
워크숍을 프로그래밍 했었다.

이 워크숍은 작품에서 말하는 마음,
그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표현이
어떤 게 있을까 엿보기 위함이었다.

현길 낮설지만 함께 워크숍을 하며
발견되는 낯선 상황들이 있었지만,
같이 움직이니 좋았다. 하나하나
나를 체크하는 시간이었다. 환기와
스며들이 오고 가는 시간이기도 했다.

대진 워크숍을 하면서 다른 방법으로
표현해 봐서 흥미로웠다.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의 몸은 어떻게
다를까? 그런 궁금함이 생겼다.

정임 서로 다른 에너지와 질감, 보이스를
가진 인물들이 극 안에서 잘 조화되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든다.

유리 배우 개개인에게 있는 모습 속에서
함께 발견하며 찾아가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워크숍 동안 발견된
충동들이 더 확대되길 기대해 본다.

뮤지컬 <광장시장> 창작진은 어느 날
만나게 될 관객을 떠올리며 지금도 연습을
진행 중이다.

무대디자인 노트

‘광장시장’을 연극적 공간으로 치환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곳에는 시장을
여는 사람들과 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다. 뮤지컬 <광장시장>에는 극을
여는 배우들과 극장을 찾은 관객들이 무대를 만든다.



자막디자인 노트

뮤지컬 <광장시장>의 노랫말이 가진 힘과 말이 가진 맛깔스러움을 오롯이 전하려면 어떤 시도를 해볼 수 있을까.

최근 농인 친구와의 대화 중 ‘뮤지컬 넘버는 가사를 통해 전해지는 마음들이 소설이나 시를 읽을 때처럼 사무칠 때가 있다’는 말에 힌트와 용기를 얻었다. 그래서 뮤지컬 <광장시장>의 자막 디자인은 기존에 작업해온 자막 해설 디자인과는 차이가 있다.

명칭부터 ‘해설’을 제외했는데, 나의 해설과 풀이가 감상을 해치지 않는까 우려하는 마음과 노랫말의 맛을 잘 담아내고 싶은 마음이 더해진 시도다.

<광장시장>을 처음 읽었을 때도, 만드는 과정을 통해 보고 들으면서도 나에게 꾸준히 닿는 감각은 ‘살아있음’이다.

아, 이건 생생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 ‘글씨’들로 할 수 있는 건,

글씨가 단순히 글씨에 지나지 않도록 작은 숨을 불어넣는 일이겠구나 생각했다.

그리고 이 작품이 가진 생동감과 사랑스러운 촌스러움, 다양하게 다정한 관심들, 애정 어린 마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작품을 만나며 느낀 감각들을 모아 16개의 넘버와 부록 넘버인

‘광장시장’까지 17개의 노랫말을 모두 다른 서체로 만들었다.

그렇게 각각의 넘버가 가진 정서와 악기의 질감들을 자막에 담아내고자 했다.

빈대떡 한 입 바삭한 소리
점치국수 호르톡 국물까지 싹

밥상에 수저를 놓듯
무던한 사랑같았지

꿈을 두고 올 땐 노랗게 부르고 싶어
환상했던 날들 있었지

아랫목 솜이불 속에 묻어둔
공깃밥 같은 사랑이었어

흙 속에 박힌 캐내지 못한 감자처럼
늪어갈까 봐 내 꿈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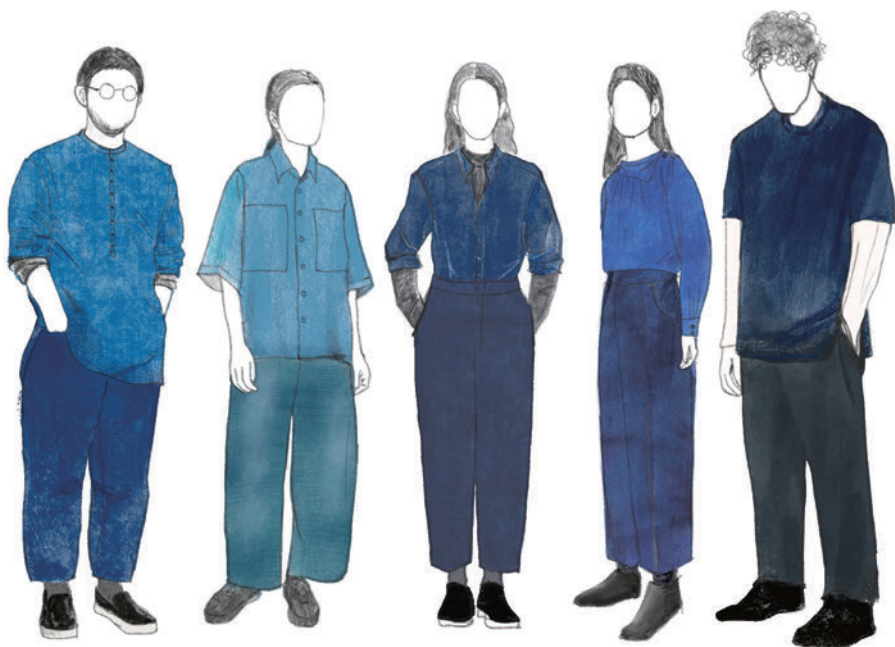
옥수수 껍질 벗기며 잠드는 밤
그런 사랑하자면서

의상디자인 노트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없고 배우들은 관객들과 함께 극장에 존재한다.
미얀마에서 온 20대 외국인 여성 아웅. 아웅은 극장 안에서 모든 이들과
분리된다. 현란한 꽃무늬 의상은 극장에 존재하는 그 누구와도 어울리지
않으며 이상하고 낯설다.



편견의 시선 속에서 아응을 품어준 이는 90대 할머니 덕자가 유일했고 덕자가 떠난 뒤로 광장시장의 상인들이 이유 없이 품어주었다. 다들 저마다 마음 한켠 꺼내지 못할 아픔과 고단함이 서로를 보듬어 주는 힘이 되었나 보다. 아응을 제외한 5명의 배우들은 관객들 속에 섞여도 이질감이 없게 캐주얼하게 디자인하였고 블루톤의 의상은 노동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동시에 평화를 상징하기도 한다.



두산인문극장 2025: 지역 LOCAL

뮤지컬
광장시장

6.17-7.5
두산아트센터 Space111

기획제작 두산아트센터

작 윤미현

작곡·음악감독 나실인

연출 이소영

조연출 박세련

안무 배유리

출연 강정임 박현철 송석근 윤현길 이지현 정대진

무대감독 김상엽

무대조감독 최상석

미술감독·무대/조명디자인 여신동

어시스턴트 무대디자인 유태희

무대제작 에스태이지(s_TAGe, 대표 이윤중)

제작팀장 김세진

제작팀 김용선 임대환 정재현 박호준 이승윤 박경준

작화 작화공간(대표 이남련)

작화팀 박지원 이재형 최다정 채근주 이주는 이선영

조명슈퍼바이저 홍유진

조명오퍼레이터 주재현

조명팀장 홍주희

조명크루 김소현 손태민 배연진 윤혜린 이상혁 이하은
전현식 정우원 정하영 주재현 허정현

의상디자인·제작 오현희

피아노 이미나

기타 천상혁

음향 시스템 디자인 이현석

플레이백 조형락

RF 김세영

마이크오퍼레이터 강용진

음향크루 권영진 박산결

영상디자인 Rafhoo

영상기술 주식회사 일단싸봐(대표 정종호, 최종원)

영상기술감독 모용우

영상오퍼레이터 남희영

영상크루 최형우

접근성 기획·운영 플랫폼 안녕(대표 이청)

접근성매니저 이청

한글자막디자인 이청

한글자막오퍼레이터 임민정

그래픽디자인 포인터스(Pointers)

사진(프로필·설정·연습·공연) Studio Kenn(대표 김병구)

사진(관객과의 대화) 스튜디오1024(대표 이재호)

영상(공연 상황) 헤즈스튜디오(대표 김선우)

SNS 콘텐츠 제작 필루미에르(대표 이화승)

인쇄 으뜸프로세스

프로그램북 협력 에디터 김상욱

두산아트센터

센터장 강석란

예술사업1팀장 김요안

공연기획 남윤일 신가은 이정민

홍보마케팅 강소라 강소정 한나래 박지희 김지영

티켓 이희정 김지은

사무 유은우

예술사업2팀장 박찬종

전시기획 장혜정 유진영 강하람 이윤서 이예인

교육기획 정다운 김서진 이담빈

기술총괄 황동철

음향 신승욱 류호성

조명 황동철 왕은지 김수민

무대 강현후 박소연

하우스 권지은 유지민

하우스 안내원

김예지, 이준(헤드 어시스턴트 매니저)
권도이, 기나연, 김경미, 김나연, 김상윤, 김수빈,
김수아, 김하나, 남연수, 남혜민, 송해원, 신아영,
양서은, 이승규, 이승훈, 이예진, 이채민, 이하은,
이현지, 임소은, 임승현, 조수빈, 차승준, 하수용

두산아트센터 2025

두산은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고
지원합니다

공연 예술

연강홀 Yonkang Hall

뮤지컬 **고스트 베이커리** 2024.12.19-2025.2.23

뮤지컬 **라이카** 3.14-5.18

뮤지컬 **베어 더 뮤지컬** 6.3-9.14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2025.10.30-2026.1.25

Space111

두산아트랩 공연 2025

다원 **이태원 트랜스젠더-클럽 2F** 1.9-1.11

연극 **8월, 카메군과 모토야스 강을 건넌 기록** 1.16-1.18

연극 **감정 연습** 1.23-1.25

뮤지컬 **달리, 갈라 기획전** 2.20-2.22

연극 **그리고 남겨진 것은**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길고 긴 사이 2.27-3.1

연극 **안젤리나 졸리 따라잡기** 3.6-3.8

연극 **물과 뼈의 시간** 3.13-3.15

연극 **변두리 소녀 마리의 자본론** 3.20-3.22

두산인문극장 2025: 지역 LOCAL

연극 **생추어리 시티 Sanctuary City** 4.22-5.10

연극 **엔들링스 Endlings** 5.20-6.7

뮤지컬 **광장시장** 6.17-7.5

공동기획

극단 작은방 | 연극 **견고덕걸** 3.29-4.13

글과무대 | 연극 **번아웃에 관한 농담** 7.19-8.3

DAC Artist

박주영 | 연극 **마른 여자들** 9.9-9.27

강동훈 | 연극 **도그 워커의 사랑** 10.28-11.15

두산연강예술상 수상자

연극 **이오진 신작** 11.25-12.13

시각 예술

두산갤러리 DOOSAN Gallery

두산아트랩 전시 2025 1.22-3.8

노혜리 개인전 4.2-5.10

두산인문극장 기획전 Ringing Saga 6.4-7.12

두산 큐레이터 워크숍 기획전 8.6-9.13

두산갤러리 기획전 10.15-12.13

교육

두산아트스쿨: 창작 워크숍 1.8-2.17, 7.3-8.9

두산아트스쿨: 미술 4.3-4.24, 11.4-11.25

두산인문극장: 강연 4.7-6.30

두산아트스쿨: 리서치 4.14-8.25

두산아트스쿨: 공연 8.11-8.14

두산아트센터 투어 10

Studio DAC 프로그램 4-12

공모

공연 예술

DAC Artist 1.6-1.23

두산아트랩 공연 5.7-6.4

공동기획 6.9-7.9

시각 예술

두산 큐레이터 워크숍 1.6-1.19

두산 해외 레지던시 4.21-5.4

두산아트랩 전시 6.2-6.15

두산아트센터 02.708.5001 doosanartcenter.com

두산아트센터 두산갤러리 02.708.5050 doosangallery.com

공연, 전시, 교육 및 공모 프로그램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